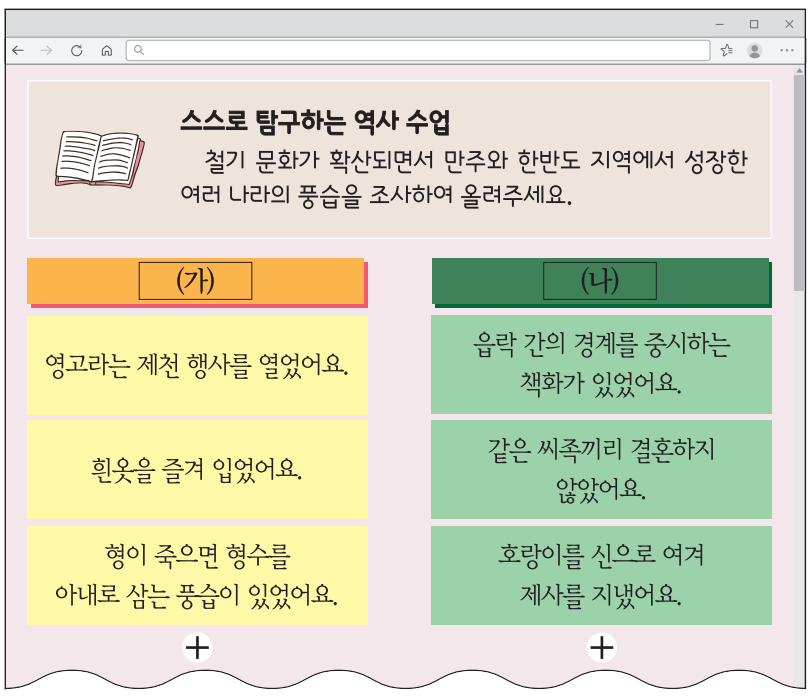
심화 2026년도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③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이용하였다.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가)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② (가) – 범금 8조를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③ (나) –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④ (나) –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⑤ (가), (나) –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어요.
②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어요.
③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어요.
④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어요.
⑤ 광개토 대왕의 침입을 받아 58성 700촌을 상실하였어요.

4. 밑줄 그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③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④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⑤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하였다.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달의 역사 인물

신라의 문장가, (가)

신라 중원경 출신으로 아버지는 나마(奈麻)* 석체이다. 유학을 공부하여 뛰어난 문장가가 되었다. 태종 무열왕 때 당의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난해한 내용이 있어 그에게 묻자 막힘없이 해석하였다. 그러자 왕이 감탄하였고, (가)(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나마: 신라 17관등 중 제11관등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② 청방인문표 등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③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④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지었다.
⑤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6.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3점]

◆ 문화유산 이야기 ◆

백제 멸망의 슬픔이 담긴 석탑



제濟 대大
국國 당唐
비碑 평平
명銘 백百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당의 장수 소정방이 이 탑의 1층 탑신에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새겨놓아, 한때는 '평제탑(平濟塔)'으로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탑 근처에서 절의 명칭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은/는 숙신의 옛 땅으로 상경을 삼으니 용천부이며, 용·호·발의 3주를 관할한다. 그 남쪽으로 중경을 삼으니 현덕부이며, 노·현·철·탕·영·흥의 6주를 관할한다. 예맥의 옛 땅으로 동경을 삼으니 용원부이며, 책성부라고도 한다. 경·염·목·하의 4주를 관할한다. 옥저의 옛 땅으로 남경을 삼으니 남해부이며, 옥·정·초의 3주를 관할한다.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서경을 삼으니 압록부이며, 신·환·풍·정의 4주를 관할한다. –『신당서』–

①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을 제한하였다.
② 정사암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③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⑤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8.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예부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에 설치하였다. …… 학생들은 글을 읽어 세 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가는데,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도 밝은 사람을 상품으로,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을 중품으로, 곡례, 효경을 읽은 사람을 하품으로 하였다. –『삼국사기』–

① 전국의 부·목·군·현에 설치되었다.
②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학을 교육하였다.
③ 전문 강좌인 7재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④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양현고가 설립되었다.
⑤ 생원시나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북원의 반란 세력 우두머리 양길이 부하 (가)을/를 보내 기병 1백여 명을 거느리고 북원 동쪽 마을과 명주 관내의 주천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였다.
○ 그때 신라가 쇠퇴하여 도적떼가 다투어 일어났다. (가)은/는 고구려의 땅에 의지해 철원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 하였다.

①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②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④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⑤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설치하였다.

1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김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혜공왕이라 하였다.
>
> (나) 왕이 청해진 대사 궁복의 딸을 왕비로 삼고자 하였다. 조정 신하들이 간언하기를, "지금 궁복은 바다의 섬사람이거늘, 그 딸이 어찌 왕실의 배필로 적합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말에 따랐다. …… 궁복은 왕이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①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②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③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⑤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11.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상하(上下) 모두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써 일을 삼으니 낮에도 시장을 열어 쌀이나 베로 거래하였다. 땅에서 구리가 생산되지만 돈을 주조할 줄 모르고, 중국에서 준 돈을 관청 창고에 간직하여 놓고 가끔 꺼내어 돌려가면서 구경할 따름이다. 숭녕(崇寧) 이후에 비로소 돈을 주조하는 기술을 배워서 해동통보·중보·삼한통보 등 세 종류의 돈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
> –『송사』–

①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②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③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④ 중강 개시와 중강 후시를 통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⑤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이 생산되었다.

13.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한국사 웹 드라마 기획안

제목	(가), 국난을 극복하다	
구성 내용	1화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르다
	2화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몽진하다
	3화	귀주에서 강감찬이 거란군을 대파하다
	4화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고 정치 체제를 정비하다
주의 사항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 30분 분량으로 제작함	

①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②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③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④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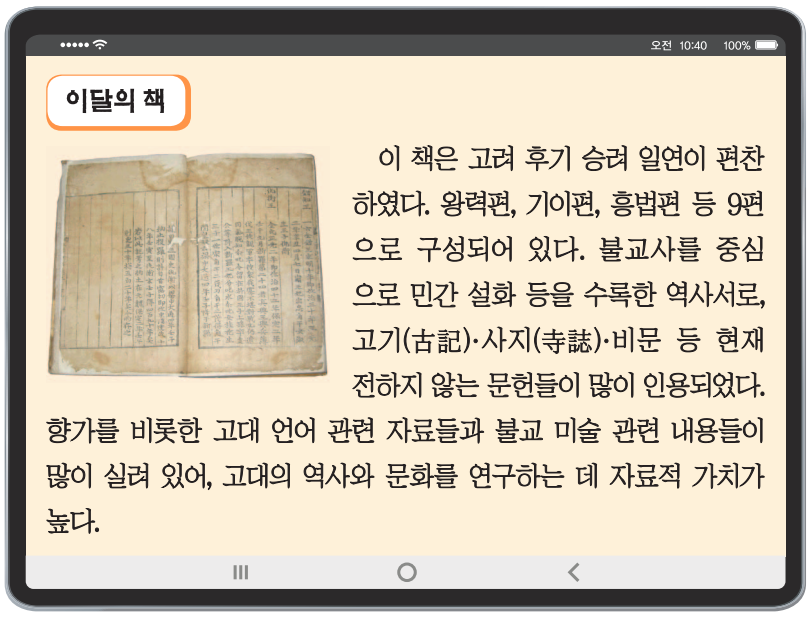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내시지후 김찬과 내시녹사 안보린이 동지추밀원사 지녹연, 상장군 최탁 등과 함께 이자겸과 척준경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하였다.
>
> (나) 어가(御駕)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고와 이의방이 앞질러 가서 왕의 명령을 위조하여 순검군을 모았다. 왕이 문에 막 들어가고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려는데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뢰를 죽였으며,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 환관들도 살해하였다.

① 최우가 정방을 설치하였다.
② 쌍기가 과거제 도입을 건의하였다.
③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④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⑤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③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④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⑤ 신라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였다.

1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대장군 인후와 장군 고천백이 원의 사신 탑납(塔納)과 함께 원에서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탑납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 사람들이 대부분 응방에 예속되어 있으니,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만으로 어떻게 공억(供億)*을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 왕이 재추들에게 말하기를, "나라는 작고 백성은 가난한데다 가뭄까지 극성이니 응방을 폐지해야 하겠소."라고 하니, 인후가 말하기를, "응방은 황제께 청하여 설치한 것인데 어찌 갑자기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 *공억: 국가나 사신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

① 서얼이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③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등이 봉기하였다.
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17.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3. 개경 이현(泥峴) 팔각전 앞
>
> 우왕과 이별한 최영이 유배 가기 전 이성계와 대화한다.
>
> 이성계: 지금의 상황은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요동 정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었기에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 최영: (탄식하는 어조로) 예전에 이인임이 말하기를, 그대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되었구려.

(가)	(나)	(다)	(라)	(마)
최충헌 집권	강화 천도	제1차 일본 원정	쌍성총관부 탈환	과전법 제정	제1차 왕자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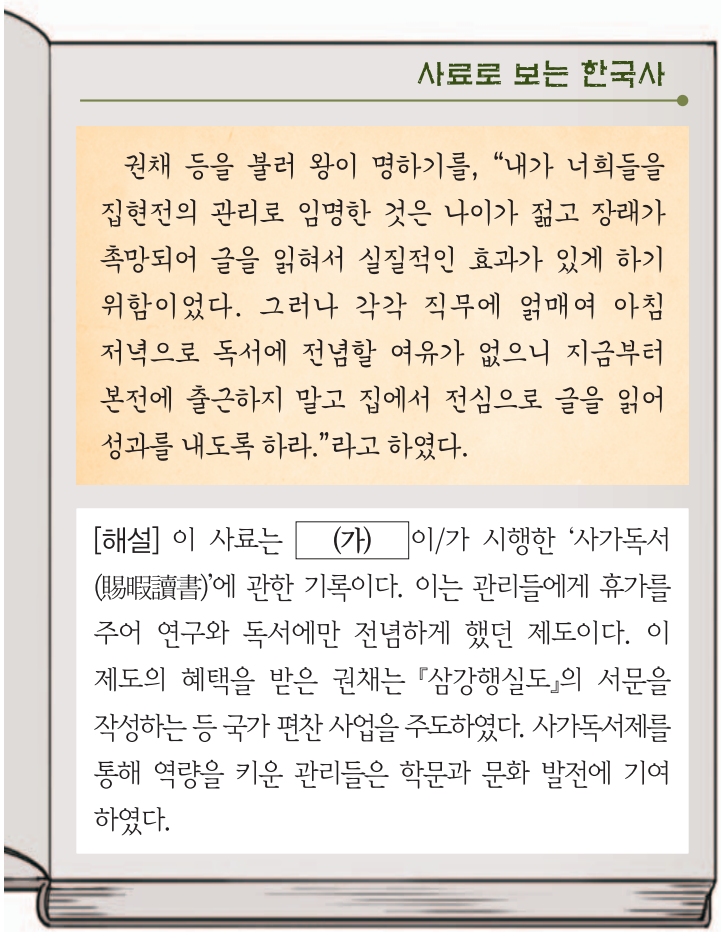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8.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화랑세기, 고승전 등을 저술하였다.
②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③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④ 예안 향약을 만들어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⑤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

19.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②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③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해 대전통편을 반포하였다.
④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을 간행하였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대비가 말하기를, "직전(職田)은 사람들이 모두 폐단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 주인이 지나치게 거둘 뿐 아니라 바치기를 독촉하는 노복들이 제멋대로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 한다. 원상(院相)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고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이에 이극증이 말하기를, "전에 과전법에서는 아비가 죽고 자식이 물려받은 것은 휼양전(恤養田)이라 칭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물려받은 것은 수신전(守信田)이라 칭하여 대대로 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없애고 직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세를 거두는 자들 중에는 함부로 거두어 들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21. 다음 가상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②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③ 팔관회에 참석하는 외국 사신
④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의 관리
⑤ 빈공과를 준비하는 6두품 출신 유학생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가) 이산해 등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왜적과 7년 동안 대치하고 있었지만 …… 왜적이 일시에 도망쳤으니 임진년 이후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이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 (나) 며칠 전 후금의 장수가 봉산으로 출발할 때 신에게 말하기를, "이미 화친한 이후이니 영원히 의심할 일이 없을 터인데 조선의 국왕이 강화도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속히 도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①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② 남이 등이 건주위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③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④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⑤ 김준룡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23.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②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③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다.
④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24.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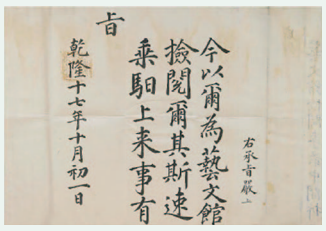
역사 용어 해설

유지(有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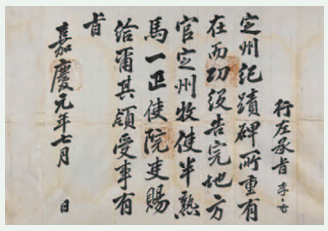
1. 개요

국왕의 명령을 관원에게 전달할 때 [(가)]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가)]의 승지가 왕명의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을 쓰고 수결한 다음 송부하였다.

2. 관련 자료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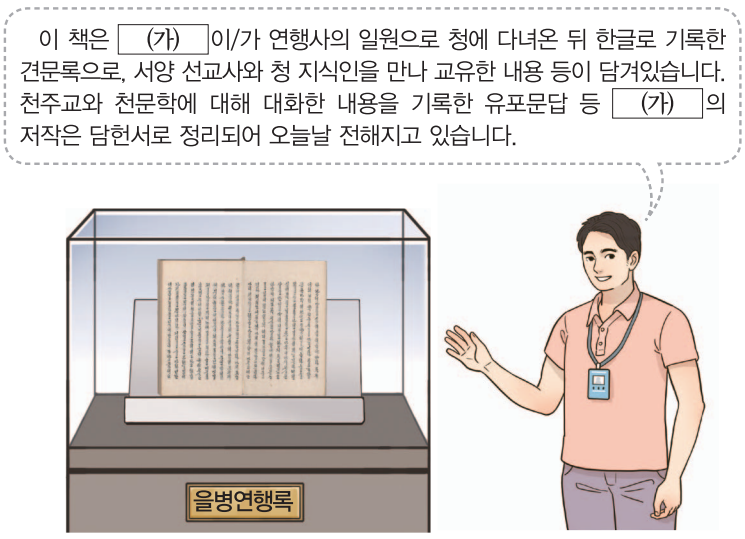
예문관 검열로 임명하니 속히 올라오라는 내용



포상으로 정주 목사에게 말을 하사한다는 내용

①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②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③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렸다.
④ 대제학을 수장으로 하였으며 경연을 주관하였다.
⑤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2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무한 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②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③ 북학의에서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였다.
④ 자연 현상과 세계 지리를 상술한 지구전요를 집필하였다.
⑤ 고금석림을 편찬하여 우리말과 외국어의 어휘를 정리하였다.

26. 밑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 국가에서 다른 나라와 우호를 통할 때에는 보통 이들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거짓된 마음을 품고 속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해를 끼침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 ○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행단 중 이들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통역에 능통한 자가 없어 나랏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를 줄이고, 능력이 뛰어난 자만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①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②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③ 노걸대 등을 교재로 공부하였다.
④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⑤ 춘추관에 소속되어 사초를 작성하였다.

27.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②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전개 과정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④ 왕이 도성을 떠나 공주로 피란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2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② 용암포 조차를 요구하였다.
③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침입하였다.
⑤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29. 밑줄 그은 '소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에게
>
> 한성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너에게서 기별이 없어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하구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소요에 한성의 많은 백성들도 합세하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당했다고 들었다. 중전 마마의 생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는데,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이다. 이 서신을 보는 즉시 답장하거라.
>
> 6월 □□일
> △△△ 보냄

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13도 창의군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③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④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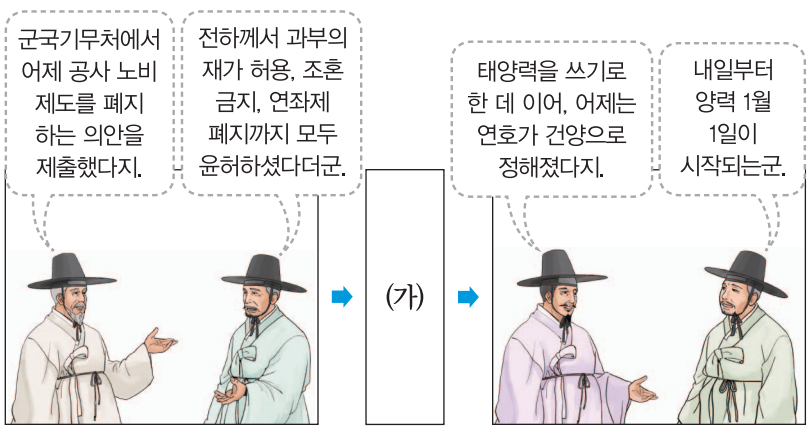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0. (가)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였다.
② 중앙군을 무위영, 장어영의 2영으로 개편하였다.
③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④ 지방 행정 제도를 8도에서 23부 체제로 바꾸었다.
⑤ 전제 군주제를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3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청과 일본이 톈진 조약을 맺었다.
② 한성 사범 학교 관제가 반포되었다.
③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④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⑤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 학사를 설립하였다.

32. 다음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②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③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④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⑤ 일진회가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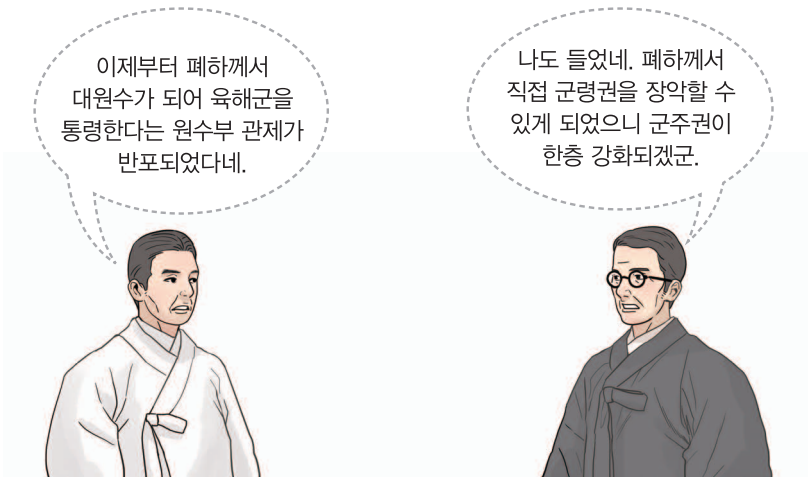
33.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내부대신이 말하기를, "단발하는 문제는 편한 대로 하게 허락한 만큼 의병을 일으킬 명분이 없는 것이다. …… 권하노니 칙사가 도착하는 날에 무기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안착하라. 만일 왕명을 거역하면 스스로 죄를 재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고종 즉위	신미 양요	갑신 정변	을미 사변	을사 늑약	국권 피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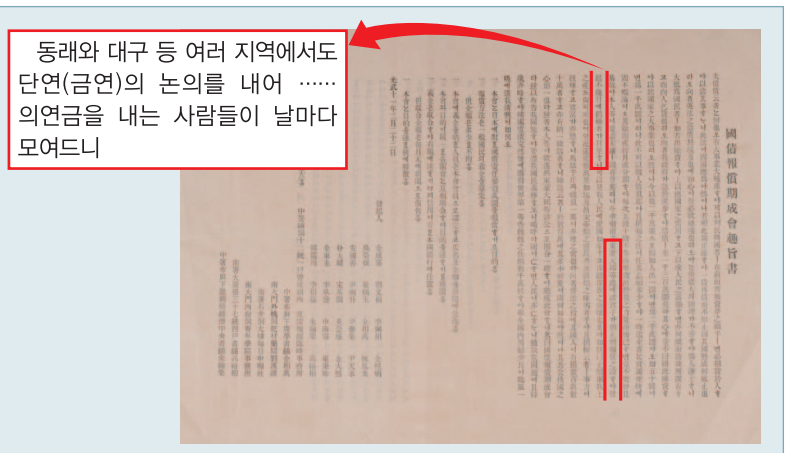
34. 다음 대화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한성순보를 인쇄하는 박문국 직공
②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받는 지주
③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④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
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5.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자료는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국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취지서이다.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갚아 국권을 지키고자 일어난 이 운동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① 대한 천일 은행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③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④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⑤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공화정체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② 숭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③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3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는 관객
② 독립문 건립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관리
③ 카프(KAPF)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④ 덕수궁 석조전 신축 공사에 참여하는 일꾼
⑤ 전차 개통식에 참석하는 한성 전기 회사 직원

38. (가) 단체 설립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탐구 활동 보고서>

○학년 ○○반 이름: ○○○

• 탐구 주제: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강점기의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

• 조사 내용

노농 임시 대회에서 의결한 요구 사항
1.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 임금은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하루 1원 이하로는 받지 않게 한다.
2. 소작료는 수확량의 3할(30%)로 한다.
3.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한 이민을 폐지한다.



기사는 (가)이/가 노농 임시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 환경 개선 및 소작인 대우 개선 등을 요구한 내용이다. (가)은/는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를 지원하고,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

①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②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 회사가 설립되었다.
③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⑤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 밑줄 그은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판결문

- **주문**: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에 따라 박공근을 징역 1년, 박동희, 양영택, 유찬옥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피고인 박공근은 나주역에서 박준채와 후쿠다 슈조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소화 4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위 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투옥된 것을 알고 이들을 동정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식민지 탄압 정치에 절대 반항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실시하라.'라는 선전 삐라를 작성하고 조선 학생 만세를 외쳤다.

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②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③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였다.
④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40.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②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③ 여권통문이 황성신문에 게재되었다.
④ 소학교라는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⑤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가 조직되었다.

41.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천도교 소년회를 주도하였다.
②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③ 광야, 절정 등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④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과학 조선을 창간하고 과학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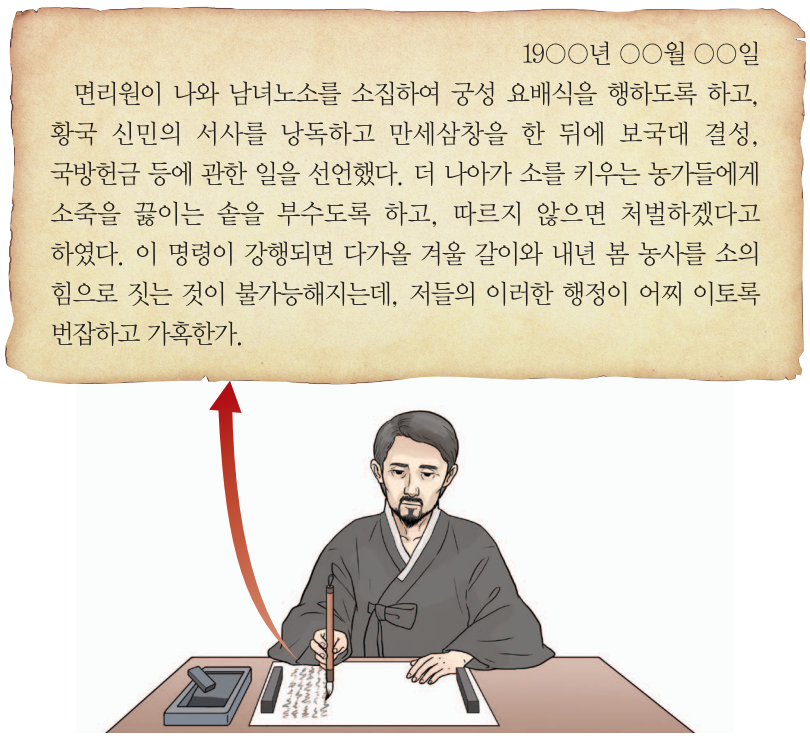
42.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기관지로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②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③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⑤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3.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신문지법이 제정되었다.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⑤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44.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② 박용만의 주도로 하와이에서 창설되었다.
③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④ 연합군과 함께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⑤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45.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전개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이 있었다.
②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③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6·3 시위와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6.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②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다.
③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④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⑤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노동 수출, 제트기 타고 서독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노동력이 수출된다. 서독으로 가는 광부 120여 명이 어제 전세기로 김포 공항을 떠났다.

광부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서독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희망자를 받은 결과, 수많은 지원자가 쇄도하여 경쟁 끝에 250여 명이 합격했고 그 1진이 출발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고된 갱내 생활의 대가로 매달 600마르크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③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④ 6개 구단으로 구성된 프로 야구가 출범되었다.
⑤ 자치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48.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②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④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49.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②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④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을 성사시켰다.
⑤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5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역사 돋보기 역대 왕조의 군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신라는 통일 후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는데 9서당이 수도 금성의 방어를 맡았다. 고려는 중앙군인 (가)을/를 편성하였고, 지방군은 주진군, 주현군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은 양인개병제 원칙 아래 양인 정남을 정군과 봉족으로 나누고, 실제 군복무를 하는 정군을 바탕으로 5위의 중앙군을 편성하였다. 지방에는 병영과 수영을 두어 외침에 대비하였다.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창설된 (나)은/는 급료를 받는 군인들로 구성된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설치되고 숙종 때 금위영이 더해지며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① (가) –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았다.
② (가) –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조직되었다.
③ (나) –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④ (나) –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 부대였다.
⑤ (가), (나) – 무예도보통지를 훈련 교범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9회 심화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①	②	①	③	②	⑤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⑤	①	③	③	③	④	⑤	⑤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④	④	③	①	③	①	⑤	①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①	④	②	②	①	③	⑤	⑤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①	④	③	④	⑤	①	②	⑤	②	③

1 선사 · 구석기 시대 정답 ②

① X 해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데 쓰는 도구로,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뼈바늘과 함께 나온다. 이 무렵 사람들은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다. 뗀석기만 쓰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은 아니다.

② O 해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옮겨 다녔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에 간단히 지은 막집에서 살았다. 자료에서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1963년)와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1964년)에서 찍개·주먹도끼 같은 뗀석기가 나왔다고 했으니 (가)는 구석기 시대다.

③ X 해설 청동 방울은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지배자가 제사나 의식을 치를 때 쓰던 도구다. 팔주령처럼 방울이 여러 개 달린 것도 있다. 청동을 다루지 못한 구석기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④ X 해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이다. 큰 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을 부려야 했으므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센 지배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계급이 없던 구석기 시대의 일이 아니다.

1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X 해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다.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토기에 곡식을 담아 저장하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토기를 만들지 못했다.

2 선사 · 여러 나라 비교 정답 ④

① X 해설 신성 지역인 소도는 삼한에 있었다. 소도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곳이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잡아갈 수 없었다. (가) 부여의 모습이 아니다.

② X 해설 범금 8조(8조법)를 만들어 질서를 지킨 나라는 고조선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기,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기 같은 조항이 전해진다. 부여의 법은 아니다.

③ X 해설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하고 죄인을 처벌한 나라는 고구려다. (나) 동예는 왕이 없고 읍군·삼로 같은 군장이 자기 마을을 다스렸다.

2 해설 계속 정답 ④

④ O 해설 동예의 특산물은 단궁(짧은 활), 과하마(키 작은 말), 반어피(바다표범 가죽)다. 자료에서 (나)는 마을끼리 경계를 넘으면 소·말·노비로 갚게 한 책화,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풍습, 호랑이를 신으로 여긴 풍습이 있었다고 했으니 동예다. (가)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흰옷을 즐겨 입은 풍습,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을 보아 부여다.

⑤ X 해설 도둑질한 사람에게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게 한 1책 12법은 부여와 고구려의 법이다. (가) 부여에는 맞지만 (나) 동예의 법은 아니므로 둘 다에 해당한다는 말은 틀렸다.

3 고대 · 백제의 위기와 중흥 정답 ②

① X 해설 고흥이 역사책 『서기』를 쓴 것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때다. 삼근왕(재위 477~479)보다 100년쯤 앞선 일이라 「이후 백제의 상황」이 아니다.

② O 해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왕은 무령왕(재위 501~523)으로, 삼근왕 다음다음 왕이다. 자료에서 개로왕의 손자이며 13세에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왕이라고 했으니 삼근왕이고, 그 뒤 동성왕·무령왕을 거치며 백제는 다시 힘을 되찾았다.

③ X 해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근초고왕 때인 371년이다. 삼근왕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④ X 해설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침류왕 때인 384년이다. 삼근왕보다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쳐서 58성 700촌을 빼앗은 것은 396년, 백제 아신왕 때다.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다. 삼근왕보다 앞선 일이다.

4 고대 · 금관가야와 대가야 정답 ①

① O 해설 금관가야는 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고, 철을 덩이쇠로 만들어 화폐처럼 쓰기도 했다. 자료에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김수로왕이 세웠다고 전하는 나라라고 했으니 「이 나라」는 금관가야다.

② X 해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둔 나라는 고구려다. 금관가야의 모습이 아니다.

4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X 해설 은병(활구)을 만든 것은 고려 숙종 때(1101)다. 은병은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은 화폐로, 입구가 넓어 활구라고 불렀다.

④ X 해설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고려 시대다. 송,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었다.

⑤ X 해설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둔 것은 신라 지증왕 때(509)다. 수도 경주에 동시라는 시장을 열고 이를 관리하게 했다.

5 고대 · 통일 신라의 유학과 학문 정답 ②

① X 해설 향가 모음집 『삼대목』은 888년 진성 여왕의 명으로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엮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강수가 한 일이 아니다.

② O 해설 강수는 김인문을 풀어 달라고 당에 청하는 「청방인문표」 같은 외교 문서를 지었다. 자료에서 중원경 출신이고 아버지가 나마 석체이며, 태종 무열왕 때 당 사신의 국서를 막힘없이 풀이해 왕에게 이름을 받았다고 했으니 (가)는 강수다.

③ X 해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 『왕오천축국전』을 쓴 사람은 신라 승려 혜초다. 8세기 전반의 일이다.

④ X 해설 「화왕계」는 설총이 꽃을 사람에 빗대어 신문왕에게 바른 정치를 하라고 일깨운 글이다. 강수의 작품이 아니다.

⑤ X 해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이두를 정리한 사람은 설총으로 전해진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다.

6 고대 · 삼국의 탑과 불상 정답 ①

① O 해설 ①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의 장수 소정방이 1층 탑신에 「대당평백제국비명」을 새겨 한때 「평제탑」으로 불렸다. 뒤에 절터에서 「정림사」 이름이 적힌 기와가 나와 지금 이름을 얻었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② X 해설 ②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다. 통일 신라 8세기에 세워졌으며 네모난 기단 위에 난간과 팔각 몸돌을 올린 독특한 모양이다. 백제의 탑이 아니다.

③ X 해설 ③은 벽돌을 쌓아 만든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에 남아 있는 발해의 전탑으로, 백제 멸망과는 관계가 없다.

6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④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이다. 통일 신라 때 만든 것으로, 기단 네 모서리에 사자 네 마리가 탑을 떠받치고 있다.

⑤ X 해설 ⑤는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 고려 시대에 세운 다각 다층탑으로, 송의 영향을 받은 탑으로 꼽힌다.

7 고대 · 발해의 통치 체제 정답 ③

① X 해설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을 제한한 것은 신라의 골품제다. 골품은 관직뿐 아니라 집 크기, 옷 색깔까지 정했다.

② X 해설 정사암에 귀족들이 모여 재상을 뽑고 나라의 큰일을 정한 나라는 백제다.

③ O 해설 발해는 무왕이 인안, 문왕이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당과 대등한 나라임을 내세웠다. 자료에서 숙신의 옛 땅에 상경 용천부, 예맥·옥저·고구려의 옛 땅에 동경·남경·서경을 두었다고 했으니 5경을 둔 (가)는 발해다.

④ X 해설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한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194) 을파소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⑤ X 해설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해 지방 세력을 견제한 기인 제도는 고려 태조 때 실시되었다.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이은 것이다.

8 고대 · 신문왕과 통치 체제 정답 ②

① X 해설 전국의 부·목·군·현에 둔 지방 교육 기관은 향교다. 고려 때부터 세웠고 조선 때 모든 군현에 하나씩 두었다. 수도에 한 곳만 있던 신라 국학과는 다르다.

② O 해설 신라의 국학은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 『효경』 같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자료에서 예부에 속하고 신문왕 2년(682)에 세웠다고 했으니 (가)는 국학이다. 뒤에 실린 상품·중품·하품 이야기는 788년 원성왕이 국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삼품과다.

③ X 해설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둔 것은 고려 예종 때 국학(국자감)이다. 신라 국학의 모습이 아니다.

④ X 해설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세운 것도 고려 예종 때다. 국학의 학생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다.

⑤ X 해설 생원시·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을 준 곳은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 성균관이다.

9 고대 · 후삼국의 성립 정답 ⑤

① X 해설 927년 공산 전투에서 견훤의 후백제군에게 크게 지고 신숭겸이 왕건 대신 죽었다. 전사한 사람은 신숭겸이고, 궁예와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935년 고려에 항복한 신라 경순왕(김부)이다. 고려 태조가 그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으면서 사심관 제도가 시작되었다.

③ X 해설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맺은 사람은 후백제의 견훤이다.

④ X 해설 936년 일리천에서 신검의 후백제군을 물리쳐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다.

⑤ O 해설 궁예는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어 나라의 틀을 갖추었다. 자료에서 북원의 양길 밑에 있다가 세력을 키웠고 철원에 도읍해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 했다고 하니 (가)는 궁예다.

10 고대 · 신라 하대의 혼란과 호족 정답 ③

① X 해설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것은 900년이다. (나) 장보고의 난(846)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원광이 진평왕의 명으로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쓴 것은 608년이다. (가)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김헌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822년(헌덕왕 14)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가)는 780년 김지정의 난 속에 혜공왕이 죽은 사건이고, (나)는 846년 청해진의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들이는 일이 막히자 일으킨 반란이므로, 822년의 일이 그 사이에 들어간다.

④ X 해설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것은 894년이다. (나)보다 뒤의 일이다.

⑤ X 해설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된 것은 654년이다. (가)보다 앞선 일이다.

11 고려 · 고려의 공예와 회화 정답 ⑤

① X 해설 사진은 두 부처가 나란히 앉은 이불병좌상이다. 발해의 불상으로, 고구려 불교 조각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② X 해설 사진은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 장식을 세운 금관이다.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에서 나온 신라의 유물로,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11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사진은 배 모양 광배를 두르고 연꽃 받침 위에 선 금제 불상으로, 경주 구황동 황복사 터 삼층 석탑에서 나온 통일 신라의 금제 여래 입상이다. 7세기 말에 만든 것으로 본다.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④ X 해설 사진은 봉황이 꼭대기에 앉고 용이 몸체를 받친 백제 금동대향로다.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백제의 유물로,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⑤ O 해설 (가)는 고려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찍었다(1377)는 단서와 점판암 청석탑이 많이 세워진 시대라는 설명이 고려를 가리킨다. 사진은 그릇 면을 파고 흰 흙·붉은 흙을 메워 무늬를 낸 고려의 상감 청자 주전자다.

12 고려 · 고려의 산업과 화폐 정답 ⑤

① X 해설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이름난 것은 발해다. 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15부 가운데 하나)이다.

② X 해설 담배와 면화 같은 상품 작물을 내다 팔려고 기른 것은 조선 후기다. 담배는 17세기 초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

③ X 해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다. 물주에게 돈을 대 받아 광산을 운영했다.

④ X 해설 중강 개시는 압록강 중강에서 열린 공식 교역 시장이고, 중강 후시는 그곳에서 상인들이 벌인 사사로운 무역이다. 둘 다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으로, 고려의 일이 아니다.

⑤ O 해설 자료의 나라는 고려다. 『송사』가 전하고, 숙종 때 해동통보·삼한통보 같은 동전을 만들었는데 백성은 불편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단서다. 고려에는 금·은·종이·자기 등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는 특수 행정 구역인 소가 있었다.

13 고려 · 거란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고려 현종이다.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 거란 침입 때 나주 피난, 강감찬의 귀주 대첩, 개경 나성 축조가 모두 현종 때 일이다. 현종 때인 1011년 거란을 물리치기를 바라며 초조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다.

② X 해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성종 때인 982년이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의 틀을 세웠다. 현종보다 앞선 일이다.

③ X 해설 윤관의 건의로 여진을 치기 위한 별무반을 만든 것은 숙종 때인 1104년이다. 현종보다 뒤의 일이다.

13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매어 굶겨 죽인 만부교 사건은 태조 왕건 때인 942년이다. 현종보다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은 광종이다.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실시했다. 현종보다 앞선 왕이다.

14 고려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최우가 자기 집에 정방을 두어 관리 인사를 손에 쥔 것은 1225년이다. (나) 무신정변(1170)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후주에서 온 쌍기가 과거제 도입을 건의한 것은 광종 때인 958년이다. (가) 이자겸의 난(1126)보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가)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궁궐을 침범한 이자겸의 난(1126), (나)는 보현원에서 이고·이의방 등이 문신을 죽인 무신정변(1170)이다. 묘청이 서경에서 일으킨 난은 1135년에 시작되어 1136년 김부식이 진압했으므로 두 사건 사이에 들어간다.

④ X 해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꾀한 것은 1198년이다. 무신 집권기의 일로 (나)보다 뒤다.

⑤ X 해설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해 강동 6주를 얻은 것은 993년(성종)이다. (가)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15 고려 · 고려의 역사서 정답 ③

① X 해설 본기·열전 등으로 나누어 쓴 기전체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다. 삼국유사는 왕력·기이·흥법 등 9편으로 짜여 기전체가 아니다.

② X 해설 남북국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1784)다.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보았다.

③ O 해설 자료의 책은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다. 왕력·기이·흥법 등 9편과 향가 수록이 단서다. 삼국유사의 기이편 첫머리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

④ X 해설 고구려 시조 동명왕(주몽)의 일생을 긴 서사시로 쓴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이다. 삼국유사와는 다른 책이다.

⑤ X 해설 신라 역사를 상대·중대·하대로 나눈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삼국유사는 신라를 상고·중고·하고로 나누었다.

16 고려 · 원 간섭기 정답 ③

① X 해설 서얼들이 청요직에 오를 수 있게 해 달라며 통청 운동을 벌인 것은 조선 후기다. 정조 때 서얼 출신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② X 해설 왕조가 바뀐다고 예언하는 정감록이 퍼진 것은 사회가 어지러웠던 조선 후기다.

③ O 해설 자료는 원 간섭기다. 원의 사신 탑납, 원 황제에게 청해 둔 응방(매를 길러 바치던 관청)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단서다. 이때 왕실과 지배층 사이에서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과 몽골 옷인 호복이 유행했다.

④ X 해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무신 집권기인 1176년(명종)이다. 원 간섭기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는 흑창을 처음 둔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다. 성종 때(986) 의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7 고려 · 신진 사대부와 고려의 멸망 정답 ④

① X 해설 (가)는 최충헌 집권(1196)부터 강화 천도(1232)까지다. 만적의 난 모의(1198)와 몽골의 1차 침입(1231)이 이 시기다. 위화도 회군은 이보다 한참 뒤다.

② X 해설 (나)는 강화 천도(1232)부터 제1차 일본 원정(1274)까지다.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새기고(1236~1251), 개경 환도(1270)와 삼별초 항쟁이 있었던 때다.

③ X 해설 (다)는 제1차 일본 원정(1274)부터 쌍성총관부 탈환(1356)까지로 원 간섭기다. 위화도 회군은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탈환보다 뒤의 일이다.

④ O 해설 자료는 요동 정벌에 나섰다가 회군한 이성계와 유배가는 최영의 대화로, 1388년 위화도 회군 직후다. 이는 쌍성총관부 탈환(1356)과 과전법 제정(1391) 사이인 (라)에 들어간다.

⑤ X 해설 (마)는 과전법 제정(1391)부터 제1차 왕자의 난(1398)까지다. 조선 건국(1392)과 한양 천도가 이 시기다. 위화도 회군은 과전법보다 앞선다.

18 고려 · 고려의 유학과 교육 정답 ⑤

① X 해설 화랑세기·고승전·한산기 등을 쓴 것은 통일 신라 성덕왕 무렵의 김대문이다. 고려 말 이색과는 시대가 다르다.

18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펴낸 것은 고려 인종 때(1145) 김부식이다.

③ X 해설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것은 정도전이다..

④ X 해설 예안 향약을 만들어 향촌을 교화하려 한 것은 조선 중기 이황이다.

⑤ O 해설 (가)는 이색이다. 서천 문헌서원, 이곡의 아들, 고려와 원의 과거 합격, 문하시중 역임, 목은집이 단서다. 공민왕이 성균관을 다시 세울 때(1367) 이색은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추천해 성리학을 가르치게 했다.

19 조선전기 · 세종의 정치 정답 ⑤

① X 해설 주자소를 두고 계미자를 만든 것은 태종 때인 1403년이다. 세종보다 앞선다.

② X 해설 우리 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때(1610) 완성했다. 세종보다 뒤의 일이다.

③ X 해설 경국대전과 이후 법전을 묶은 대전통편을 펴낸 것은 정조 때(1785)다.

④ X 해설 국가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는 세종 때 시작해 성종 때(1474) 완성되었다. 세종이 완성한 것이 아니다.

⑤ O 해설 (가)는 세종이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한 사가독서 제도와 권채, 『삼강행실도』가 단서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와 달·별의 움직임을 계산한 칠정산 내편을 펴냈다.

20 조선전기 · 과전법과 토지 제도 정답 ④

① X 해설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준 것은 고려 태조 때(940)다. 조선 직전법과는 관계없다.

② X 해설 5품 이상 관리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공음전을 준 것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제도다.

③ X 해설 경기 8현의 땅으로 관리에게 녹과전을 준 것은 고려 원종 때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녹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리가 많아지자 1271년 원칙을 정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④ O 해설 자료는 직전법의 폐단이다. 과전법의 수신전·휼양전을 없애고 직전으로 바꾸었는데 수조권자가 지나치게 거둔다는 내용이 단서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성종 때(1470) 관청이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20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관리 등급에 따라 곡식을 거두는 땅(전지)과 땔감을 얻는 땅(시지)을 준 것은 고려의 전시과다. 경종 때(976) 처음 만들었다.

21 조선후기 · 서민 문화의 발달 정답 ②

① X 해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 발해 문왕 때 세워져 왕족과 귀족 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쳤으니,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니다.

② O 해설 전기수(소설을 읽어 주는 사람), 춘향전, 상평통보가 나오는 자료는 조선 후기다. 부산의 왜관은 1678년(숙종 4)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옮겨 새로 지어졌고, 이 초량 왜관에서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이 교역했으니 같은 시기의 모습이 맞다.

③ X 해설 팔관회는 고려의 큰 국가 행사다. 고려 때 팔관회에는 송의 상인과 여진·탐라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하고 선물을 바쳤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니다.

④ X 해설 제위보는 고려 광종 때(963) 세운 빈민 구제 기관이다.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니 고려의 모습이다.

⑤ X 해설 빈공과는 당나라가 외국인을 위해 따로 연 과거 시험이다. 신라 6두품 출신이 당에 유학해 이 시험을 많이 치렀고, 최치원이 대표 인물이니 통일 신라의 모습이다.

22 조선전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답 ④

① X 해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쓰러뜨린 것은 1232년, 고려 때 몽골의 2차 침입 때다.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보다 훨씬 앞선다.

② X 해설 남이가 강순 등과 함께 건주위 여진을 정벌한 것은 1467년(세조 13)이다.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직후의 일로, (가)보다 앞선다.

③ X 해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것은 1593년,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다. 전쟁이 끝난 뒤를 말하는 (가)보다 앞선다.

④ O 해설 (가)는 「왜적과 7년 동안 대치」가 끝났다는 말이니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 무렵이고, (나)는 후금과 「화친한 이후」 강화도에 피란한 국왕에게 도성으로 돌아가라 하니 정묘호란(1627)의 화약 직후다. 광해군 때인 1619년 강홍립 부대가 명의 요청으로 사르후 전투에 나간 일이 그 사이에 들어간다.

22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김준룡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청군과 싸운 것은 병자호란(1636~1637) 때다. 정묘호란(1627)보다 뒤의 일이라 (나) 이후에 해당한다.

23 조선후기 · 영조의 탕평 정치 정답 ④

① X 해설 장용영은 정조가 1793년에 세운 왕의 친위 부대다. 1785년에 만든 장용위를 키운 것으로, 영조가 아니라 정조 때의 일이다.

② X 해설 자의 대비의 상복 문제로 일어난 예송은 현종 때다. 1659년(기해예송)과 1674년(갑인예송) 두 번 서인과 남인이 크게 다투었으니 영조보다 앞선다.

③ X 해설 청과 국경을 정한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숙종 38)에 세워졌다. 영조가 즉위한 1724년보다 앞선 숙종 때의 일이다.

④ O 해설 청계천 준천(바닥을 파내는 공사)을 하고 균역법을 실시한 「이 왕」은 영조다. 영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1728년,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강경파와 일부 남인이 영조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아 난을 일으켰다(무신란).

⑤ X 해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러시아군과 싸운 것은 효종 때의 2차 나선 정벌(1658)이다. 영조보다 한참 앞선 일이다.

24 조선전기 ·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 정답 ③

① X 해설 내각일력은 규장각의 업무 일지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세운 왕실 도서관 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승정원과는 다른 기구다.

② X 해설 을묘왜변(1555)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된 것은 비변사다. 비변사는 삼포왜란(1510) 때 임시로 생겼다가 상설화되었고, 임진왜란 뒤 나라의 최고 기구가 되었다.

③ O 해설 (가)는 왕의 명령을 관원에게 전하는 문서인 유지를 만들고, 그 기구의 승지가 직접 써서 보냈다고 하니 승정원이다. 승정원은 왕명을 들이고 내보내는 왕의 비서 기관으로, 은대(銀臺)·후원(喉院)이라고도 불렸다.

④ X 해설 대제학을 두고 경연(왕과 신하의 학문 토론)을 맡은 것은 홍문관이다.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불렸으며,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사를 이루었다.

24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5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한 것은 사헌부와 사간원(대간)이다. 승정원의 일이 아니다.

25 조선후기 · 중상주의 실학 정답 ①

① O 해설 을병연행록을 한글로 쓰고 유포문답을 남겼으며 저작이 담헌서로 정리된 (가)는 담헌 홍대용이다. 홍대용은 1765년(영조 41)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왔고,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과 우주가 끝이 없다는 무한 우주론을 펼쳤다.

② X 해설 양반전은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이다.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이야기로 양반의 겉치레와 무능을 꼬집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도 남겼다.

③ X 해설 북학의는 박제가가 쓴 책이다. 박제가는 소비를 우물물에 빗대어, 알맞게 써야 생산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④ X 해설 지구전요는 최한기가 1857년에 지은 책이다. 서양의 지리책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와 자연 현상을 정리했다. 최한기는 홍대용보다 뒤인 19세기의 학자다.

⑤ X 해설 고금석림은 조선 후기 학자 이의봉이 엮은 어휘집이다. 우리말과 여러 외국어의 낱말을 모아 풀이했으니 홍대용의 저술이 아니다.

26 조선후기 ·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 정답 ③

① X 해설 신량역천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남들이 꺼리는 힘든 역을 지던 사람들이다. 수군, 봉수군, 조례·나장 같은 이들이 여기에 들었고, 통역을 맡은 역관과는 다르다.

② X 해설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린 것은 관찰사다. 관찰사는 각 도에 보낸 가장 높은 지방관으로, 역관이 아니다.

③ O 해설 나라끼리 사귈 때 중간에서 말을 전하고, 청에 가는 사행단에 따라가 통역(본연의 업무)을 하는 「이들」은 역관이다. 역관은 중인 신분으로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배워 잡과의 하나인 역과로 뽑혔고, 중국어 회화 책인 노걸대 등을 교재로 썼다.

④ X 해설 사고팔거나 물려주고 선물할 수 있었던 것은 노비다. 노비는 재산으로 여겨졌으니 역관과 다르다.

⑤ X 해설 춘추관에서 사초(역사 기록의 초고)를 쓴 사람은 사관이다. 사관은 왕 곁에서 일을 기록했고, 그 사초가 실록의 바탕이 되었다.

27 조선후기 · 홍경래의 난 정답 ①

① O 해설 「서북민에 대한 차별」, 「청천강 이북 장악」, 「정주성에서 진압」이라는 단서로 (가)는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다. 몰락 양반 홍경래가 우군칙·김사용 등과 함께 평안도 가산 다복동에서 일으켰고, 1812년 정주성이 함락되며 끝났다.

② X 해설 청군이 파병된 것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때다. 조정이 청에 군대를 요청했고, 일본군도 들어와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다.

③ X 해설 집강소는 1894년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고을마다 세운 자치 기구다. 홍경래의 난과는 관계없다.

④ X 해설 왕(인조)이 도성을 떠나 공주로 피란한 것은 1624년 이괄의 난 때다. 반란군이 한때 한양을 차지했다.

⑤ X 해설 박규수가 안핵사로 내려간 것은 1862년 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 때다.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28 근대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정답 ⑤

① X 해설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나라는 영국이다. 러시아를 막는다는 구실로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거문도를 차지했다.

② X 해설 용암포 조차를 요구한 나라는 러시아다. 1903년 압록강 어귀의 용암포를 차지하고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③ X 해설 운산 금광 채굴권을 얻은 나라는 미국이다. 1890년대 중반 미국 공사관의 알렌이 조선 정부와 교섭해 평안도 운산의 금광을 캘 권리를 얻어 미국 사업가에게 넘겼다. 「노다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④ X 해설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을 구실로 쳐들어온 나라는 미국이다. 1871년의 신미양요로,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맞서 싸웠다.

⑤ O 해설 「병인박해 이후 20년 만」의 조약(1886)으로 「천주교 선교사」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다는 단서로 (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1866년 강화도를 침략했고(병인양요),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의궤 등 책을 빼앗아 갔다.

29 근대 · 임오군란 정답 ①

① O 해설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소요」, 「일본 공사관 습격」, 「중전 마마의 생사도 알 수 없음」은 1882년 임오군란이다. 군란이 끝난 뒤 일본은 공사관 피해를 따져 같은 해 제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과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얻어 냈다.

② X 해설 13도 창의군은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맞선 정미의병 때 결성되었다. 이인영·허위 등이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벌였다.

③ X 해설 입헌 군주제를 목표로 한 것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나, 의회 설립을 추진한 독립 협회 같은 근대 개혁 운동이다. 임오군란은 차별 대우에 화가 난 구식 군인의 봉기였다.

④ X 해설 척화비가 전국에 세워진 것은 1871년 신미양요 직후다. 흥선대원군이 서양과 화친하지 않겠다는 뜻을 새겨 세웠다.

⑤ X 해설 황사영이 외국 군대를 불러 달라는 백서를 쓴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다. 이 일로 천주교 탄압이 더 심해졌다.

30 근대 · 개화 정책과 개화파 정답 ②

① X 해설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낸 것은 1903년 대한제국 정부다. 간도에 사는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려는 조치였다.

② O 해설 삼군부 청사를 쓰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며 청에 영선사를 보낸 (가)는 1880년에 세운 통리기무아문이다. 통리기무아문은 1881년 별기군을 만들고, 옛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으로 바꾸었다.

③ X 해설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 영조 때 편찬되었다. 개화기의 통리기무아문과는 관계없다.

④ X 해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바꾼 것은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다. 이듬해(1896)에는 다시 13도로 고쳤다.

⑤ X 해설 전제 군주제를 법으로 밝힌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이 반포했다. 광무개혁 시기의 일이다.

31 근대 · 을미개혁 정답 ②

① X 해설 청과 일본의 톈진 조약은 1885년에 맺어졌다. 1884년 갑신정변 뒤 두 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함께 물러나고, 앞으로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미리 알리기로 한 조약이다. (가) 시기(1894~1895)보다 10년쯤 앞선다.

② O 해설 자료 왼쪽은 군국기무처가 공사 노비 제도 폐지·과부 재가 허용을 결정한 1894년 1차 갑오개혁, 오른쪽은 태양력과 연호 「건양」을 정한 1895년 을미개혁이다. 그러니 (가)는 그 사이의 2차 갑오개혁 시기다. 이때 고종이 1895년 2월 교육 입국 조서를 내렸고, 이어 1895년 4월 교원을 기르는 한성 사범 학교의 관제가 반포되었다.

③ X 해설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펴낸 것은 1896년 4월이다. 아관파천(1896.2) 뒤의 일로, 을미개혁보다도 늦어 (가) 시기에 들지 않는다.

④ X 해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은 일본이 놓은 철도로, 1905년 1월에 개통되었다. 러일 전쟁 무렵의 일이라 (가) 시기보다 10년 뒤다.

⑤ X 해설 원산 학사는 1883년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리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 학교로 꼽힌다. 갑오개혁보다 11년 앞선 일이다.

32 근대 · 러일 전쟁과 한일 의정서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증」한다면서,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땅을 마음대로 차지해 쓸 수 있게 한 한일 의정서(1904.2)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대한 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곧바로 이 조약을 강요했다.

② X 해설 고종이 강제로 물러난 것은 1907년 7월이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일을 일본이 트집 잡아 퇴위시켰다. 한일 의정서보다 3년 뒤다.

③ X 해설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된 것은 1907년 8월이다.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비밀 각서에 따른 것으로, 해산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합류했다. 한일 의정서보다 뒤의 일이다.

④ X 해설 화폐 정리 사업은 재정 고문 메가타가 1905년부터 벌인 일이다. 제1차 한일 협약(1904.8)으로 들어온 고문이 추진했으니 한일 의정서보다 뒤다.

⑤ X 해설 친일 단체 일진회가 「합방 청원서」를 낸 것은 1909년 12월이다. 국권 피탈(1910) 직전의 일로, 한일 의정서보다 훨씬 뒤다.

33 근대 · 항일 의병 운동 정답 ④

① X 해설 (가)는 고종 즉위(1863)부터 신미양요(1871)까지다. 흥선 대원군이 나라를 이끌며 병인양요(1866)·신미양요를 겪은 때로, 아직 의병이 일어나기 전이다.

② X 해설 (나)는 신미양요(1871)부터 갑신정변(1884)까지다. 강화도 조약(1876)으로 나라 문을 열고 임오군란(1882)이 일어난 때로, 단발령은 아직 없었다.

③ X 해설 (다)는 갑신정변(1884)부터 을미사변(1895)까지다.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이 있던 때다. 단발령은 을미사변 뒤인 1895년 말에 내려졌으므로 이 시기가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는 내부대신이 「단발은 편한 대로 하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킬 명분이 없다」며 칙사가 오면 무기를 놓고 돌아가라고 권하는 장면이다. 을미사변(1895.10)과 단발령(1895년 말)에 맞서 일어난 을미의병에게, 아관파천(1896.2) 뒤 고종이 단발령을 거두고 해산을 권한 일이다. 을미사변과 을사늑약(1905) 사이인 (라)에 해당한다.

⑤ X 해설 (마)는 을사늑약(1905)부터 국권 피탈(1910)까지다. 이때는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이 일어났고 의병을 달래 해산시키려는 단발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이었다.

34 근대 ·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정답 ②

① X 해설 박문국은 1883년에 세운 인쇄·출판 기관으로, 우리나라 첫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펴냈다. 원수부 설치(1899)보다 16년 앞선 개화 정책기의 모습이다.

② O 해설 황제가 대원수가 되어 군대를 직접 거느리는 원수부는 1899년 대한 제국이 만든 기관이다. 그 뒤 대한 제국은 광무개혁으로 땅을 다시 재고(양전 사업), 1901년 지계아문을 두어 땅 주인에게 소유를 증명하는 관계(지계)를 내주었다.

③ X 해설 육영 공원은 1886년 정부가 세운 근대 학교로, 미국인 교사(헐버트 등)를 불러 양반 자제에게 영어 등을 가르쳤다. 원수부보다 앞선 1880년대의 모습이다.

④ X 해설 보빙사는 1883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다(민영익·홍영식·유길준 등). 1880년대 개화 정책기의 일이다.

⑤ X 해설 우정총국은 1884년에 문을 연 우편 업무 기관이다. 1884년 12월 개국 축하연 때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원수부보다 15년 앞선 일이다.

35 근대 · 경제적 구국 운동 정답 ②

① X 해설 대한 천일 은행은 1899년 대한 제국 때 민족 자본으로 세운 은행이다. 국채 보상 운동(1907)보다 8년 앞서 있었으니 그 계기가 될 수 없다.

② O 해설 자료의 1,300만 원 나라 빚, 금연으로 의연금을 모은 일, 일본 차관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보아 「이 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같은 신문이 모금 소식을 실어 주며 운동을 도와 전국으로 퍼졌다.

③ X 해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1923년 이상재 등이 만든 단체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을 내걸고 대학 세울 돈을 모았다. 1920년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일이다.

④ X 해설 백정 차별을 없애려 한 것은 형평 운동이다.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며 시작되었다.

⑤ X 해설 자작회(1922)와 토산 애용 부인회(1923)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한 단체다.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며 국산품 쓰기를 앞세웠다.

36 일제 ·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의 박상진, 1915년 대구에서 조직,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으로 보아 (가)는 대한 광복회다. 대한 광복회는 나라를 되찾은 뒤 공화정체의 나라를 세우려 했다(공화주의).

② X 해설 숭무 학교는 1910년 멕시코로 이민 간 한인들이 메리다에 세운 군사 학교다. 대한 광복회가 아니라 멕시코 한인 사회가 독립군을 기르려고 만든 것이다.

③ X 해설 만민 공동회는 독립 협회가 1898년에 연 민중 대회다.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막고 백성의 권리를 넓히려 했다.

④ X 해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내려 한 것은 독립 의군부다.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 조직했고, 고종을 다시 세우려는 복벽주의를 따랐다.

⑤ X 해설 독립 공채를 펴낸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다(1919년 무렵부터). 연통제·교통국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었다.

37 일제 ·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 정답 ③

① X 해설 원각사는 1908년 문을 연 근대식 극장이다. 이곳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1920년대가 아니라 대한 제국 때의 모습이다.

37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독립문은 독립 협회가 모금 운동을 벌여 1896년 짓기 시작해 1897년에 완성했다. 1920년대보다 30년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자료의 영화 「아리랑」은 나운규가 만들어 1926년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했고,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세워졌다. 그러니 (가)는 1920년대의 모습이다.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는 1925년에 만들어져, 노동자·농민의 가난한 삶을 그린 신경향파 작가들이 활동했다.

④ X 해설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에 짓기 시작해 1910년에 완공된 서양식 건물이다. 대한 제국 때의 모습이다.

⑤ X 해설 한성 전기 회사는 1898년에 세워졌고, 1899년 서대문~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개통했다.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

38 일제 · 농민·노동 운동 정답 ⑤

① X 해설 방곡령은 일본으로 곡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1889년 함경도, 1890년 황해도에서 내린 명령이다. 조선 노농 총동맹(1924)보다 훨씬 앞선다.

② X 해설 농광 회사는 1904년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이에 맞서 우리 손으로 땅을 개간하자며 세운 회사다. 1924년보다 20년 앞선다.

③ X 해설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서울 시전 상인들이 만든 단체로, 외국 상인이 서울 안에서 장사하는 것에 맞서 상권을 지키려 했다.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

④ X 해설 회사령은 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가 공포해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법령이다. 1920년에 폐지되어 신고제로 바뀌었으니, 1924년 이전의 일이다.

⑤ O 해설 자료의 노동 임시 대회,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 지원, 뒤에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나뉨으로 보아 (가)는 1924년에 만들어진 조선 노농 총동맹이다(1927년 분리). 원산 총파업은 1928년 9월 문평 라이징 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린 일이 발단이 되어 1929년 1월에 일어났으니 그 뒤의 일이다.

39 일제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정답 ⑤

① X 해설 조선 형평사가 이끈 것은 형평 운동이다. 1923년 진주에서 시작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했다.

39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멈춘 것은 1907년의 국채 보상 운동이다. 통감부는 1906~1910년에만 있었으므로 1929년의 일과는 맞지 않는다.

③ X 해설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1926년 6·10 만세 운동이다.

④ X 해설 정우회 선언은 1926년 11월에 나왔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27년 2월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1929년의 시위 운동보다 앞서므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없다.

⑤ O 해설 자료의 「소화 4년(1929)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 운동」,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다툰 일이 발단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신간회는 진상 조사단을 광주에 보내 지원했고, 진상을 알리는 민중 대회를 열려다 간부들이 붙잡혔다.

40 일제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정답 ④

① X 해설 조선 태형령은 1912년에 시행되어 한국인에게만 매질 형벌을 가하게 한 법령이다.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의 일로, 1920년에 없어졌다.

② X 해설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내린 글로,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바탕이라고 밝혔다. 1936년보다 40년쯤 앞선다.

③ X 해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서울 북촌 여성들이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밝힌 글로,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실렸다.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

④ O 해설 자료의 손기정 선수 사진에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보도로 보아 「이 사건」은 1936년 8월 일장기 말소 사건이다. 그 뒤 1941년 국민학교령으로 소학교가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⑤ X 해설 토월회는 1923년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연극 단체로, 근대극(신극) 운동을 벌였다. 1936년보다 앞선 1920년대의 일이다.

41 일제 ·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 정답 ①

①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는 잡지 「어린이」를 펴내고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전시된 잡지 「개벽」·「어린이」와 「세계 발명 말판」도 단서다. 이 사람은 방정환이다. 방정환은 1921년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 소년 운동을 이끌었고, 1922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41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상록수」는 심훈이 쓴 소설이다. 동아일보 장편 소설 공모에 뽑혀 1935~1936년 동아일보에 실렸다. 농촌 계몽 운동을 그린 작품으로, 방정환의 활동이 아니다.

③ X 해설 「광야」·「절정」은 이육사의 시다. 이육사는 의열단 활동에도 참여한 시인으로, 1944년 베이징의 감옥에서 숨졌다. 방정환의 활동이 아니다.

④ X 해설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세운 사람은 안창호다. 1908년 무렵 신민회 활동의 하나로 세웠고, 1912년에 문을 닫았다. 방정환의 활동이 아니다.

⑤ X 해설 잡지 「과학 조선」을 펴내고 「과학 데이」 행사를 연 사람은 김용관이다. 발명 학회를 이끌며 1933년부터 「과학 조선」을 냈고, 1934년 4월 19일 첫 과학 데이 행사를 열었다.

42 일제 · 국어 연구와 조선어 학회 정답 ④

① X 해설 「진단 학보」는 진단 학회의 학술지다. 진단 학회는 1934년 이병도·손진태 등이 우리 역사·언어·문학을 우리 손으로 연구하려고 만든 단체다. 조선어 학회가 아니다.

② X 해설 순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이종일 등이 창간했다. 대한 제국 시기의 일로, 조선어 학회(1931)보다 훨씬 앞선다.

③ X 해설 태극 서관은 1908년 무렵 안창호 등 신민회가 평양·서울·대구에 세운 서점이다. 책을 보급해 민족 의식을 높이려 했다. 조선어 학회가 아니다.

④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이 단체」 회원으로 최현배·정인승이 나오고, 조선어 사전 편찬 활동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다. 조선어 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1936년 표준어를 정했다.

⑤ X 해설 국문 연구소는 1907년 대한 제국 학부 안에 세운 국어 연구 기관이다. 주시경·지석영 등이 참여했다. 조선어 학회보다 앞선 대한 제국의 기구다.

43 일제 · 병참 기지화와 인력 수탈 정답 ③

① X 해설 신문지법은 1907년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졌다.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기사를 미리 검열해 언론을 막은 법이다. 일기 속 1930년대 후반보다 30년쯤 앞선다.

43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6월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장쭤린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만주의 독립군을 붙잡아 일본에 넘기기로 했다. 일기 속 시기보다 앞선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일기에 궁성 요배, 황국 신민의 서사 낭독, 보국대 결성, 국방 헌금, 소죽 끓이는 솥을 부수게 한 일까지 나온다. 1937년 중일 전쟁 뒤의 전시 동원 모습이다. 일제는 1938년 4월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조선에도 적용하고,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게 했다.

④ X 해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졌다. 일제가 땅 주인과 세금을 정리한다며 시행한 1910년대의 정책이다. 일기 속 시기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제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 8월에 공포되었다. 일본어 보급과 실업 교육에 치우친 1910년대 교육 정책이다. 일기 속 시기보다 앞선다.

44 일제 · 한국광복군 정답 ④

① X 해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것은 1920년 10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다. 한국광복군(1940)보다 20년 앞선 일이다.

② X 해설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부대는 대조선 국민 군단이다. 1914년 미국 하와이에서 만들어 독립군을 기르려 했다. 한국광복군이 아니다.

③ X 해설 흥경성 전투(1933)에서 이긴 것은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이다.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손잡고 1932년 영릉가 전투에서도 일본군을 이겼다. 한국광복군이 아니다.

④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는 학도 지원병에서 탈출한 김우전이 합류했고,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바로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은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보냈다. 이들은 일본군 포로 심문과 선전 방송 등을 맡았다.

⑤ X 해설 중국 관내에서 만든 첫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다. 1938년 10월 김원봉이 한커우(지금의 우한)에서 만들었다. 1942년 그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지만 처음 만든 부대는 아니다.

45 현대 ·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정답 ⑤

① X 해설 제암리 학살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지금의 화성)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3·1 운동 참여 주민들을 교회에 모아 죽인 사건이다. 3·1 운동 때의 일이다.

② X 해설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열렸다. 제주 4·3 사건(1948)보다 앞서므로 그 배경이 될 수 없다.

③ X 해설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세워졌다. 제주 4·3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6·3 시위는 1964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 회담에 반대해 일어났다. 정부는 비상 계엄을 선포해 이를 눌렀다. 제주 4·3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무장대와 토벌대가 부딪치고,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일을 말한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다.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46 현대 · 남북 협상 정답 ①

①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그」는 윤봉길이 속한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 임시 정부가 충칭에 있을 때 주석을 지냈다. 1876년에 태어나 탄생 150주년을 맞는 김구다. 김구는 1948년 4월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을 벌였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막고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② X 해설 흥사단은 1913년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단체다. 인격을 닦고 실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구의 활동이 아니다.

③ X 해설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8월 여운형이 광복에 대비해 국내에서 비밀리에 만든 단체다.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바탕이 되었다. 김구의 활동이 아니다.

④ X 해설 1946년 6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고 말한 사람은 이승만이다(정읍 발언). 김구는 오히려 단독 정부에 반대했다.

⑤ X 해설 조선 혁명 간부 학교는 1932년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난징에 세운 학교다. 독립군 간부를 길렀다. 김구의 활동이 아니다.

47 현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답 ②

① X 해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외환 위기 뒤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려는 법이다.

② O 해설 정답이다. 기사는 서독의 요청에 따라 광부를 뽑아 보낸다는 내용으로, 광부 파견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다. 이때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했다. 서독으로 간 광부와 간호사가 보낸 돈은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③ X 해설 소련과 수교한 것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때다. 이어 1992년에는 중국과도 수교했다.

④ X 해설 6개 구단으로 이루어진 프로 야구는 1982년 전두환 정부 때 출범했다. 프로 축구도 1983년에 시작되었다.

⑤ X 해설 지방 의회 선거는 1991년에 다시 열렸고, 자치 단체장까지 뽑는 지방 자치제는 1995년 6월 김영삼 정부 때 전면 시행되었다.

48 현대 · 6월 민주 항쟁 정답 ⑤

① X 해설 시위대가 스스로 무장해 시민군을 만든 것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계엄군에 맞섰다.

② X 해설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은 1979년 10월 부마 민주 항쟁과 곧이은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피살)다. 6월 민주 항쟁(1987)보다 앞선다.

③ X 해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것은 1960년 4·19 혁명이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다.

④ X 해설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일(1979.10)은 부마 민주 항쟁을 불러왔다. 6월 민주 항쟁과는 다른 사건이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는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일로 번졌고, 「호헌 철폐」를 외쳤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다.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고, 1987년 10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졌다.

49 현대 · 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 ②

① X 해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남북이 처음 합의했다.

49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정답이다. 연설에서 「지난달 8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한다.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9월 남북한은 국제 연합(UN)에 함께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맺었다.

③ X 해설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를 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개성 공단 사업과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넓히던 때다.

④ X 해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처음 서로 보낸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다. 광복 뒤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

⑤ X 해설 평창 동계 올림픽(2018)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50 통합 · 시대 통합 정답 ③

① X 해설 병마절도사는 조선 시대 각 도의 육군(병영)을 지휘한 무관이다. (가) 고려 중앙군과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좌별초·우별초·신의군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삼별초다. 고려 무신 정권 때 최우가 만든 야별초에서 비롯되었고, 몽골에 끝까지 맞섰다(1270~1273). (가)가 아니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는 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다. (나)는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만든, 급료를 받는 상비군인 훈련도감이다. 훈련도감은 1593년에 설치되었고, 포수(총)·사수(활)·살수(칼과 창)의 삼수병으로 짜였다.

④ X 해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이루어진 왕의 친위 부대는 고려 중앙군의 2군이다. 곧 (가) 쪽의 설명이므로 (나)에 붙이면 틀린다.

⑤ X 해설 「무예도보통지」는 정조 때인 1790년에 완성된 무예 교본이다. (가) 고려의 2군 6위는 이보다 수백 년 앞서 사라졌으므로 (가)와 (나)에 함께 해당한다는 말은 틀린다.